

동명동 '광주다움 담은 문화마을'로 만든다

광주시 문화전당·동명동 연계 관광 자원화 마스터플랜 착수 근대 주택·골목길 등 발굴 보·차도 분리 걷고 싶은 거리로

광주시 동구 동명동 일대가 광주다움을 담은 문화마을로 조성된다. 예스리 주택과 골목길을 발굴하고, 오감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시켜 관광 자원화하며, 인근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도심관광트레일과도 연계한다. 광주시는 동명동 일대를 아시아문화전당을 지원하고 배후 기능을 할 수 있는 광주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상업기능을 갖춘 문화마을로 조성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에서 이용섭 시장과 관련 분야 전문가, 광주 동구 및 주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서울의 경리단길에 빛나 '동리단길'로 명성을 얻고 있는 동명동 일대를 연계해 광주다움을 담은 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철거된 광주읍성의 동문밖 동계천 주변에 형성된 동명동 주거지 일대는 관사, 공관 등 고급 주택 밀집지역이다. 또한, 과거 철길 주변에 형성된 저층 주거지역과 옛 광주교도소, 나무전거리의 흔적 등이 일부 남아있지만, 광주의 고유함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동계천로 학원가 주변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카페거리라는 이색적인 카페

와 맛집 등이 밀집돼 있어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차량과 보행이 혼재돼 연결 관계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가로경관과 시설 활용에 불편함이 크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근대 주거지의 골목길과 주택, 특화된 장소와 광주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볼거리·먹거리·들을거리·숙박 체험거리·공방거리 등을 융복합 브랜드화 해 오감 체험마을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도와 차도 분리, 공공디자인 사업 등의 연계를 통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의견 및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문화활동가(기획자) 등이 함께하

는 광주 문화마을 추진단을 운영한다. 시민 및 전문가 참여 기획 프로그램을 공동하고, 인근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동명동 뉴딜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광안내 기능강화사업, 문화전당 주변 도심관광트레일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한다. 이용섭 시장은 "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 일대를 광주만의 고유함이 묻어나는, 광주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있는 문화마을로 조성해 국내외 방문객들이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향유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전문가 및 시민 참여형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마스터플랜에 담긴 실행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환경공단 고객만족도 전국 공단 중 1위

행안부 368개 지방공기업 조사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은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5개 환경공단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광주환경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368개 지방공기업의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9년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종합만족도 75.67점을 받아 전국 5개 환경공단 중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분야별로는 ▲서비스환경 74.06점 ▲서비스결과 71.66점 ▲서비스결과 71.66점 ▲사회적만족 82.58점 ▲전반적 만족 72.70점으로 전 분야 고르게 점

수가 상승했다. 공단은 전 부서별로 중·단기 고객만족도 중점 개선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온 결과가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68개 지방공기업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광역 환경공단의 경우 광주 외에 인천, 대전, 대구, 부산환경공단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역 환경공단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이용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에 의해 총 400표본을 전화 조사하며 올해 전국 환경공단의 평균은 74.41점으로 조사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 도와달라"…진영 장관 전국 17개 시·도에 협조 당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을 상대로 홍보와 협조를 부탁했다. (사진) 진 장관은 이날 정중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고은석 광주세계수영대회조직위

인력지원봉사부장 등과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각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진 장관은 수영대회 마스코트인 수리·달이 인형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수영대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정 부시장은 참석자들에게 수영대회 입장권 단체구매 협조를 당부했다. 진영 장관은 "7월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에 각 시·도의 적

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전국에서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수영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북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모집

광주시 북구가 주민들에게 스마트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구는 "6월 7일까지 지역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2019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성인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북구는 2019년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1900여만 원을 확보하고 올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자에게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하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앱과 연동해 보행수, 이동거리, 심박수 등을 측정하는 스마트 밴드를 제공하며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이 식생활, 운동량 등 모니터링을 실시해 7~12월까지 4주간 건강관리, 일대일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험지역을 진입하면 경고를 하는 시스템도 포함된다. 장에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권관광 문화해설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여행 가이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무장애 여행 플랫폼은 오는 11월말까지 제작될 예정이다. 양림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남구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구, 장애인·관광객·주민 위한 '여행 플랫폼' 만든다

스마트폰 지도 앱 제작

광주시 남구가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안내지도와 테마별 여행 서비스 등 무장애 여행 플랫폼을 구축한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장애인 단체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주민, 기술전문가, 구청 직원이 참여해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지도 앱을 만들어 장애인에게 각종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장소와 도로 등 경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관광 지도를 제작하고, 장애 경중에 따라 여행코

스를 안내한다. 해당 앱에는 디지털 여행 지도와 테마별 여행 프로그램, 관광 예약 서비스, 장애인 주차장 실시간 현황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단순 위치 표시뿐만 아니라 접근 경로까지 확인 가능하고 위험지역을 진입하면 경고를 하는 시스템도 포함된다. 장에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권관광 문화해설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여행 가이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무장애 여행 플랫폼은 오는 11월말까지 제작될 예정이다. 양림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남구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사회적 약자 제품 구매 확대...창업·벤처기업 제한경쟁 입찰제 도입 추진

광주시 민생경제 현장 홍보 기업인 150여명 의견 청취

이용섭 광주시장의 민생경제 현장 홍보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지난달 17일부터 1개월여 간 총 10회에 걸쳐 지역 민생경제 현장 방문을 했다. 이를 통해 150여 명의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110여건의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홍보 마케팅지원 21

건 ▲공공구매 확대 14건 ▲기업환경개선 11건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대표들은 수의 계약 확대 적용을 건의하고 광주시의 적극적인 구매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여성,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경우 5000만원까지 수의 계약을 확대 적용하는 법률이 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사회적 약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과 수의계약 우선 적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계약부서는 각급 부서와 산하기관에 사회적 약자 생산 제품의 수의계약 확대를 적극 적용하도록 요청 공문을 보냈고,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회계과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5000만원 이내 금액에서 사회적 약자 제품의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25일부터는 창업·벤처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는 제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광주시는 현장투어 과정에서 건의된 ▲지역공동브랜드 판로 개척 ▲창업공간 환경 개선 ▲신용보증규모 확대 ▲뿌리기업을 위한 회의장 제공 ▲자동차 2차 협력사 지원 확대 ▲하남산단 내 침수피해 예방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제시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애로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제일오피스텔, 사무실 전용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23-2번지 (구, 수기동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20층, 77평, 최상층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전망 좋음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즉시입주가
- 보3천만원에 월110만원에 임대가능
- 건설회사, 보험회사등 사무실 적합
- 시세/감정가 - 4억
- 급매 - 3억30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조정가)

문의. 010-6834-7400